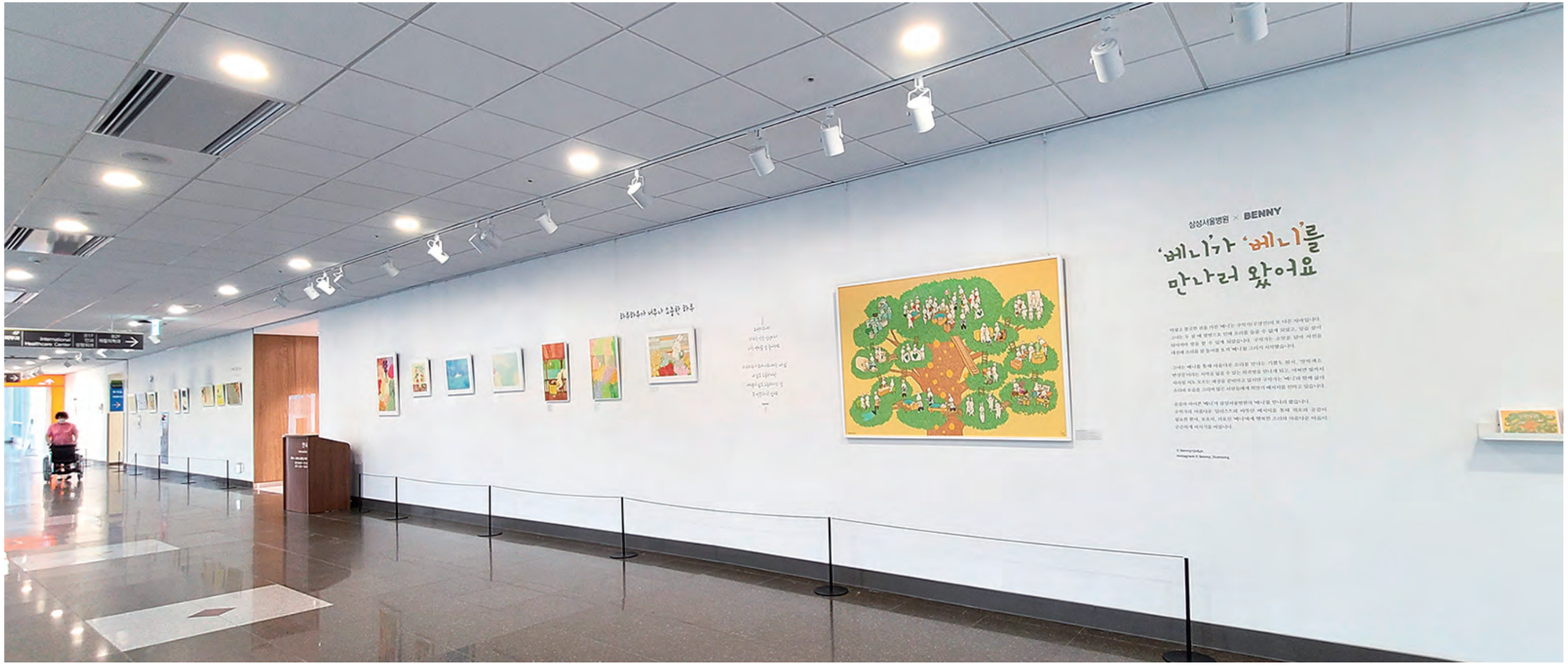
SMC Open Gallery는 암병원과 본관을 연결하는 별관 1층 통로에 위치해 있는 약 37m의 오픈 갤러리월입니다.
매일 2만여 명의 환자·내원객과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주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부터 15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전시, 직원과 환자 참여형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환자, 보호자, 임직원들에게 삶의 희망을 찾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3.3.1
구작가 초청 전시
<'베니'가 '베니' 만나러 왔어요>

전시 중 감상평 응모 이벤트를 통해 전시 관람객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은 작가와 예술작품이 전하는 정서적 치유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따뜻한 감성을 공유하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우울하고 검사받느라 지친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위로와 여유를 느낀 시간이다.
OOO 작가를 알게 됨에 감사하며 좋은 작가.
그림을 만나게 해준 삼성병원에게도 고맙다.
이제 병원은 내게 우울하기만 한 곳이 아니다. ”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항암으로 지친 마음에 따스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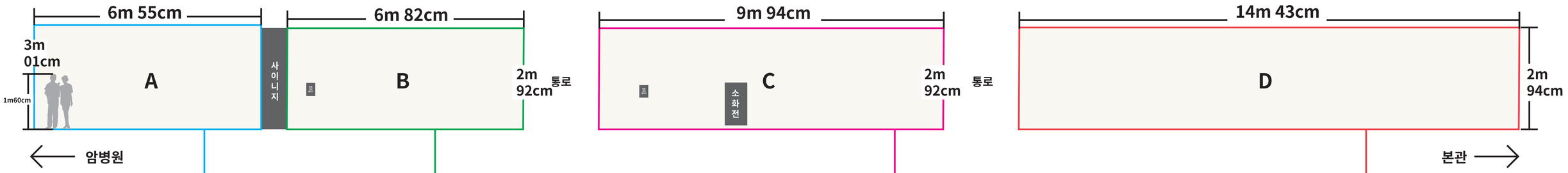
“문화생활은 커녕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지내시는 엄마께 삼성병원의
짧고 반짝반짝한 OO전시는 추운 겨울날의
따스한 손난로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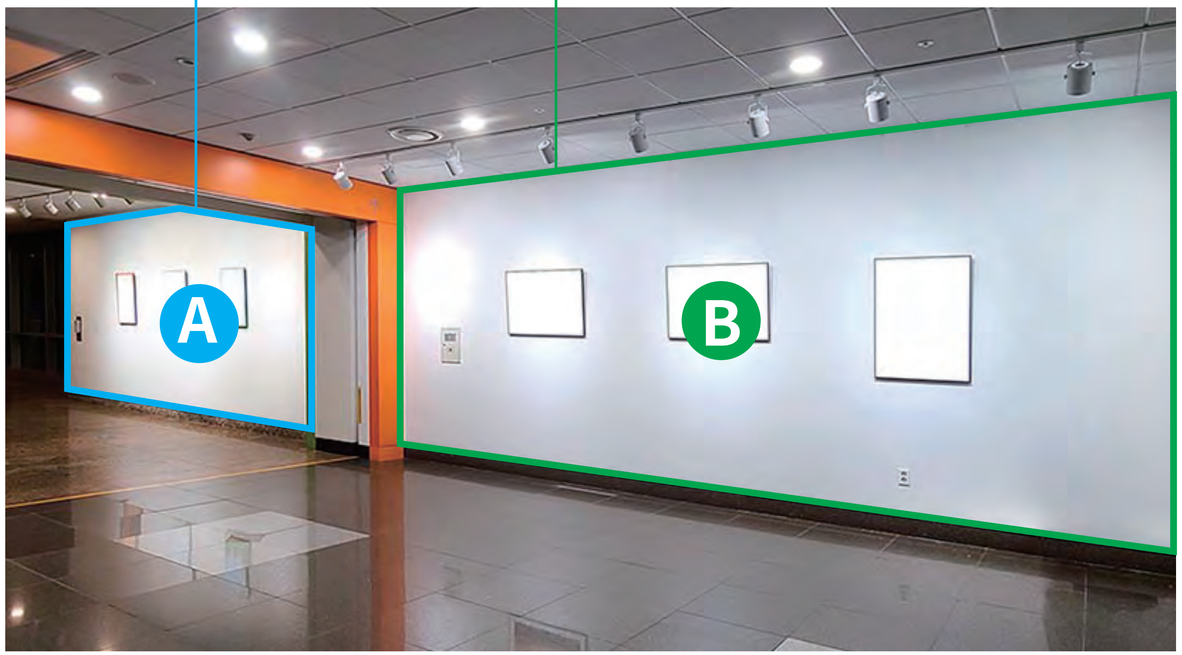
“그림만 봐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어
아이와 저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졌어요
전시회를 다 보고나니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촉촉... 덕분에 병원 별관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 전시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친 오후에 힘을 얻고갑니다. ”

“병원은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 지는 곳이고
끝없는 아픔을 위로 받는 곳입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을 강요받는 곳이기도 하구요.
지난한 기다림 속에 병원 복도 한켠에 기대어
아픔을 잠시 잊고 전시를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만으로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멋진 전시 감사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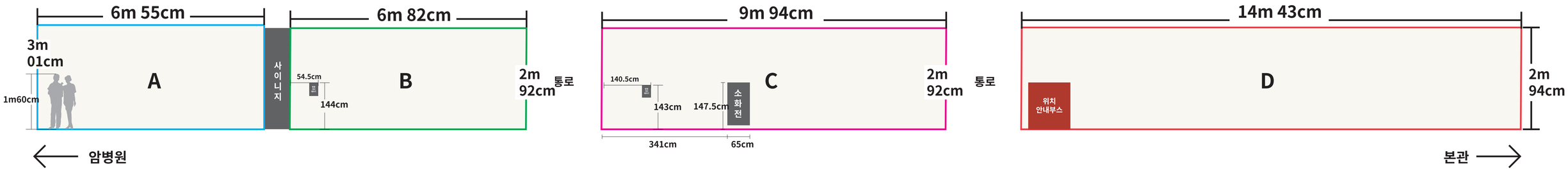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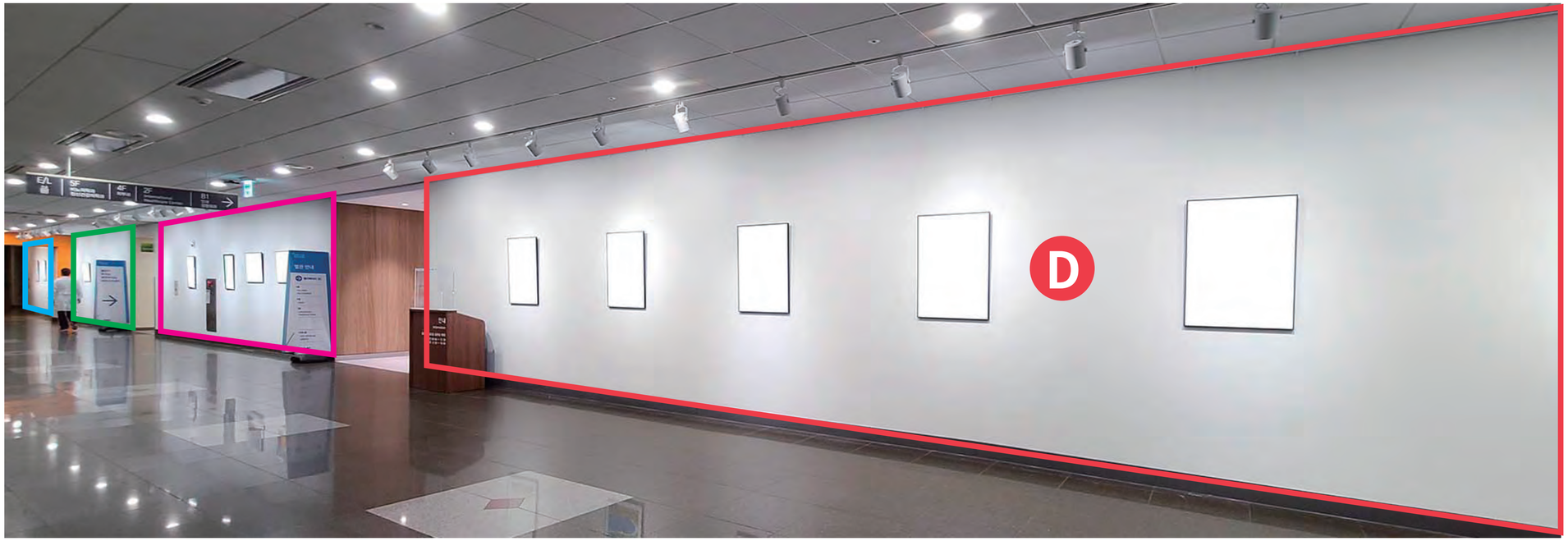
약 37M 갤러리월의 세부 도면입니다.





전시 공간 세부 사진

※ 도면 수치는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시의 시작은 전시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